현장시선

제주아트플랫폼사업, 계속되는 문제들

고 영 림
(사)제주국제문화교류협회장, 언어학박사

2018년에 등장한 한짓골아트플랫폼사업이 2023년에 제주아트플랫폼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추진된다. 지난 5년 동안의 과정을 되짚어보면 제주문예재단이 왜 이 사업을 추진하려 했는지 여전히 궁금하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 역사 문화적 가치에 대해 갸우뚱할 수 밖에 없는 재밋섬(옛 아카데미극장)건물을 무려 재단 기금 100억 원을 주고 매입했으니 말이다. 이 건물이 이미 경매에서 30억 원 이하까지 떨어졌던 사실 앞에서는 실소를 금할 수 없다.

2018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단이 재밋섬 건물을 매입한다고 사업설명회를 열더니 선거 다음 날 당시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이 100억 원을 사용해도 된다고 전결했고 재단은 1차 중도금 10억 원을 지불했다. 이후 계약금 2원, 중도해약금 20억 원의 매입 계약서가 제주도의회에서 지적됐고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거쳐 재단은 타당성검토위원회를 만들었다. 아니나 다를까, 이 검토위원회는 매입이 타당하다고 결론냈다. 2022년 5월, 역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단은 나머지 90억 원을 지불, 전격적으로 매입을 완료했다. 오비이락일까 아니면 의도된 시점이었을까.

상식적이지 않은 계약에서 시작된 후 매입 완료까지 도민이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제 문제는 이 건물의 리모델링으로 이어지고 있다. 재단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비용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새로 짓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것이 건물 리모델링이다. 영화관 용도로 만들어진 건물을 용도 변경해 재탄생시키려면 과연 재단이 예상하는 비용으로 가능할 것인가. 지하 3층, 지상 8층 건물을 현재 재단이 확보한 비용으로 리모델링 해낼 수 있음을 도민에게 보여달라.

재단과 제주도에게 경고한다. 리모델링에 필요한 추가 비용이 발생했을 때 도민에게 손 벌리는 구차한 모습을 보이지 말라. 이 사업을 시작하고 추진했던 재단 이사장들은 퇴임했고 함께 책임이 있는 제주도 담당 부서의 공무원들은 이임하거나 퇴직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에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스스로 벌인 일은 스스로 해결하라.

제주도의회에게 요구한다. 추가 비용이 발생했을 경우 더 이상 도민의 세금으로 지출하는 일을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도민에게 보여주기식 지적은 그만하라. 도민의 대의기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음을 제주아트플랫폼사업에 대한 지속적 감시로 증명해야 한다.

제주도 문화예술사에 이미 기록됐고 여전히 기록을 남기고 있는 제주아트플랫폼사업의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다. 도민 집단지성의 리트머스시험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공사업의 부끄러운 과유불급 사례가 되지 않으려면 재단은 이제라도 도민에게 지혜를 구함이 마땅하다.

사설

위축된 제주경제 활로 모색해야

최근 발표되는 경기지표들이 시장 컨센서스를 밑돌아 지역경제에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15일 발표한 실물경제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서비스업생산지수는 전 분기에 비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판매액지수도 면세점을 중심으로 전년 동기보다 5.1% 감소했다. 이는 제주 방문 관광객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1월 중 내도 관광객 수는 104만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12만2000명 감소했다. 2월에도 감소세는 지속되고 있다.

건설경기도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건축착공면적과 건축허가면적은 전년 같은 달 대비 각각 53.7%, 47.9% 감소했다. 건설수주액 역시 주택시장 부진에 따라 민간부문 중심으로 38.4% 감소했다. 지난해 12월 제조업 생산은 음료를 중심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4.2% 감소했고, 수출은 14.6% 줄었다. 고용률은 3개월째 하락했다. 실업률은 취업자 수가 감소하면서 3개월째 상승하고 있다. 각종 지표들이 위축된 제주경제를 방증하고 있다.

다행히 제주도가 신속집행 대상 예산 4조3687억 원 중 2조6829억 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해 경기 부양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예산 집행의 실효성은 타이밍이 중요한 만큼 당국은 적기에 지출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또 기업의 발목을 잡는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시장경제 저해 요인들을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야 한다. 특히 중국인 제주관광 재개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 이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야 한다.

연두방문 더 나은 발전방향으로…

제주도지사의 행정시 연두방문이 2019년 이후 4년 만에 있었다. 코로나 이후 위축된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가 재도약하도록 소통을 통해 도정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한다.

오영훈 지사는 14, 15일 이틀간에 걸쳐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제주시에서는 해양경계법을 비롯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물 안전 문제와 해양쓰레기 수거대책 등에 대한 의견제시가 있었다. 오 지사는 그에 따른 해결책을 내놓았다.

서귀포시 방문에서 오 지사는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수년간 정체된 헬스케어타운,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옛 탐라대 부지 활용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소신을 피력했다.

연두방문 자체가 행정에서 미처 챙기지 못하거나 왜곡 또는 잘못된 판단으로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개선하는 것이어서 나름 의미 있는 현장행정으로 볼 수 있다. 도정방침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행정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차질이 생길 수가 있다. 민원도 다양하다. 때문에 현장의 의견청취는 필요하다. 하지만 언제까지 한 곳에 주민들을 모아놓고 목소리를 들을 것인가. 과거 답습의 행정은 변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 다양한 소통창구를 마련해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오 지사의 계획대로라면 굳이 연두방문이라는 자리를 마련해 의견을 청취하지 않아도 된다.

도지사의 행정시 연두방문이 '위민행정'을 위해 공직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 격려하는 자리가 되면 어떨까.

그래픽 뉴스

열린마당

사소한 관행조차 버리는게 청렴

이 동 훈
서귀포소방서 현장대응과

흔히들 청렴은 공무원이 지녀야 하는 가장 중요한 자질이자 당연한 덕목이라고 말한다. 공직자들의 청렴은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미래에 불필요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강력한 수단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감사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독립적 조사 및 수사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기관이나 법만으로는 부정·부패의 관행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 공직자는 공무 수행 중 자신의 유익과 도덕적 선이 상충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행이라는 이유로 주변을 침묵하게 만들고 사소한 위반을 은근슬쩍 넘어가는 것도 부정한 행위이다.

눈앞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공직자는 스스로 왜 자신이 청렴해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르는 사람은 스스로를 보존하지 못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직자 스스로의 의지이다. 공직자로서 공직윤리나 사명을 생각해 청렴해야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청렴은 자기 자신의 가장 큰 가치임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공직자는 청렴도에 따라 상벌을 받는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에 기여한 공직자는 명예와 함께 국민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다. 나와 우리에게 청렴하면 국민이 따른다. 그리고 청렴한 사회는 개인이 행복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미래를 발전시킬 것이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라일보 제주의대표신문
발행인·인쇄인·편집인 김 건 일 편집국장 이 윤 형
㊞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e-mail : hl@ihalla.com
광고접수 본 사 750-2828 / FAX 752-7448 서귀포지사 732-5552 / FAX 732-5559
기사제보 750-2214 / FAX 752-9790
구독신청·배달 750-2330
구 독 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 : 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가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차고지/주차장
市의 자기차고지갖기사업
* 市 지원 90% *
2023년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접수 중
* 자기차고지갖기사업 *
No.1시공업체
편리한생활건축설비
010-9908-9200
종합집수리/하자보수

묘지후손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를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이내 가능합니다."
◆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찾는 경우
◆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묘지 전문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연구소
신소장 ☎010-7305-7819 제주토박이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미국식품의학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흘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키폰·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통신전주건식(가입자부담공사)
▶ 네트워크 설비공사
▶ 전관방송 설비공사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 표 : 현 문 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

강정동 카페 및 펜션 토지 매각
1 강정 해안도로 접 607평(카페 A급 토지)
2 강정동 주택지 373평
3 강정 해안도로 뒤 370평(건축 높이 17m가능)
4 서귀포 이마트 근접 180평(바다조망 건축가능)
5 월평포구 도로 근접 590평(상가 및 펜션 건축가능)
6 호근동 일주도로 위 범섬 조망 180평(주택 건축 가능)
7 고근산 뒤 5,000평 조경 식재(별장 건축 가능)
※ 부동산중개사 아님
010-7328-1107, 010-6275-5200

토지임대
제주시 월성로4길 76-2 (해태동산/공항방면 우측)
대지 4,123㎡(1,247평)
건물 2동 / 2종 근린생활시설
현재 렌터카 차고지
임대료 상담후 결정
744-2002, 010-2113-2112

향운철학관
향운거사 이방택
사주, 관상 2가지 방법을 종합해서 운명을 감정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자기운명이 현재, 미래에 어떠한 운명인가를 알아서 살아가는 지혜가 중요합니다.
사회에 나가서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 성공할 것인지 대학은 문과를 가야할 것인지 이공계열을 가야할 것인지 미래의 진로를 선택해야 할 중3, 고1, 2년생 환영합니다.
하루에 오전, 오후해서 2명만 전화 예약 받습니다.
복비 : 50,000원
전화 010-7301-7737

택지, 상가 긴급매각
1) 성산포 500평 현재 70% 공사중 해안도로접
2) 송당리 1,000평(분할 가능) 관리지역(평당 750,000원) 관광농원 입구, 송당리 마을, 2차선 접함
3) 종달리 6,000평(분할 가능) 관리지역(평당 1,600,000원) 우도와 일출봉사이 바닷가
4) 시흥리 5,000평(분할 가능) 잡종지, 일주도로 접함
5) 성산포 12,000평(분할 가능) 해안도로 접함
010-4820-4823
(부동산중개사 아님)